

4월5일(월)/사도행전16:16~18

제목: 귀신은 우리 보다 강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16절)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바울과 누가와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다. 그녀는 귀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점을 쳐주고 받을 수 입을 여러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종이였다. ‘주인들’ 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녀를 이용한 사람은 여럿이었다. 그 귀신들린 자가 바울과 일행들을 뒤 따라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17절)이라고 고함질렀다. 귀신은 바울이 지극히 높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17절), 즉 바울 사역의 핵심까지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귀신들린 여자의 가련한 상태와 나쁜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비인도적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를 해방시켜주었다(18절) 귀신은 바울의 사역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능력있는 존재들이었다. 귀신은 바울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전도자라고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었다. 귀신은 지성적이고 능력적인 면에서는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바로 이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힘겹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통으로 무장하면 그들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다.

4월6일(화)/사도행전16:19~34 (1)

제목: 직접 만나서 푸세요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에 큰 지장을 받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들이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였다(19~20절). 고발자들은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우리의 돈벌이를 막았다” 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0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바울이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법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돈줄이 끊어진 것에만 신경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심을 법이라는 탈로 감추고 법을 이용하여 바울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인간들이 항상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그의 허물을 조작하여 공격적으로 노출시킴으로 그를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하는 방법을 쓴다. 우리는 이러한 야비한 방법을 쓰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4월7일(수)/사도행전16:19~34 (2)

제목: 고난 중에 찬송을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차꼬에 채워졌다(23~24절).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였다(24절).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채워진 차꼬가 풀어졌다(26절).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였다(27절). 그러자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나섰는데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구원을 요청하였다(29~30절). 이렇게 하여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32절). 여기서 우리는 25절의 “기도했다” 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기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간구하다’ 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 단어는 “경배하다” 라는 말이다. 그들은 찬양하고 또 찬양한 것이다. 그들은 어둡고 음침한 감옥에서 맞은 상처로 인해 쓰시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였고 영적인 기쁨이 넘쳤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요 기독교의 찬송이다.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다.

4월8일(목)/사도행전16:35~40

제목: 실수 했으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 날 감옥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받은 상관들은 ‘이 사람들’ 을 놓아주라고 전갈을 보냈고 간수는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34~35절). “이 사람들” 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말이다. 상관들은 법을 어겼을 때 그 피해자를 보내버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바울은 법을 어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로마 사람인 자기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정중하게 모셔가라고 하였다(37절). 바울은 불의에 대해 항의없이 묵묵히 있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상관들이 직접 나타나서 타이르고는 떠나줄 것을 청하였다(39절).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러 형제들을 위로한 편만한 마음으로 빌립보를 떠났다(40절). 상관들은 바울을 때릴 때는 언제고 일이 불리해지니까 사과는 커녕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였다. 사람은 정중히 사과할 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실수 했으면 분명히 해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이런 일로 곤경을 당할 때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4월9일(금)/사도행전 17:1~9

제목: 동요나 동화나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다(1절). 거기서 그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강론하였다(2절). 바울은 성경에 따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해야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다(3절). 바울의 강론은 열매를 맺어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확신을 가졌다(4절). 그런데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고 확신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그 집을 수색하였으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식구들에 화풀이를 하였다(5~6절). 불량배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6절)고 하였다. 이 말은 기독교에 베풀어진 칭찬 중 가장 위대한 칭찬이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막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데에는 털끝만 치도 의심치 않았다. 항상 기독교는 세상을 격동케 한다. 기독교가 행동할 때는 항상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가 가는 곳에도 이런 동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는 직장, 학교, 동네에도 이런 작은 동요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동요는 커녕 내가 그 속에 동화되어버리고 마는가? 동요나 동화나에 따라 내가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가 구분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